

관용어 풀이

우리 신체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눈은 마음의 거울이 되기도 하는데, 요즈음같이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망울이 그다지 산뜻(?)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외접촉이 많은 직장인들이 이를 한번쯤 되새겨 보고, 밝은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이나 동료 뿐만 아니라 직장의 전체 분위기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눈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In one's mind's eye :

마음속에, 상상하여

이 표현은 단순히 '상상할 수 있는' 또는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이라는 뜻이다.

물론 마음이나 머리속에 실제로 눈이 있는 것은 아닌데, 때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 만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마치 눈 앞에 훤히 보이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표현은 17세기 초 셰익스피어가 처음 작품 속에 쓴 이후로 오늘날까지 줄곧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 I can see the whole scene **in my mind's eye**.
(나는 그 장면 전체를 상상할 수가 있다.)
- **In my mind's eye** I can picture what's going to happen.
(나는 지금부터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일을 (상상하여) 머리속에 그릴 수 있다.)
- After looking at the architect's plans, it was easy for him to see the completed house **in his mind's eye**.
(건축가의 설계도를 보고 나서부터는 그도 완성된 집을 머리에 쉽게 그려 볼 수가 있었다.)

To have bags under one's eye's :

눈이 움푹 패어지다.

여기서 'bags'라는 단어는 '자루같은 모양의 헐렁헐렁하게 늘어진'이란 뜻의 형용사 'baggy'와 관련이 있다.

만약 몹시 피곤하거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을 때 눈 밑이 속 들어가 눈 아래가 거무스레하게 부은 것처럼 보일 때 'has bags under his eyes'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는 또 우리말의 '눈이 썩하다'(has hollow look around one's eyes)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눈이 움푹 패어 눈아래 늘어진 살의 모양을 bag으로 비유한 것이 재미있다.

'bags'는 '부풀어 올라온 곳' 또는 '접혀서 겹쳐진 움푹한 곳'이라는 뜻으로 4백년 이상이나 쓰여져 내려 왔지만 이 표현 자체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닌 것 같다.

- You must be awfully tired. You've got **bags under your eyes**.
(당신은 몹시 피곤한가 봐요. 눈 밑이 움푹 들어가 살이 늘어졌군요.)
- These **bags under my eyes** make me look terrible.
(눈 밑에 살이 늘어져서 얼굴이 엉망으로 보인다.)

To be all eyes :

열심히 바라보다,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다

이 표현은 3백년 이전부터 쓰였다. 17세기 초 셰익스피어의 작품중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을 열심히 그리고 주의깊게 지켜보다'(give all one's attention to)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look intently at) 경우, 마치 그 사람의 온몸이 눈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다. 실제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 주위를 기울이거나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이다.

은 정신이 한 곳에 쏠려 그것을 보고 있는 데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The children **were all eyes** as they looked at the Christmas tree.

(어린이들은 온 정신을 눈에 모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 Tom never misses anything. He's **all eyes**.
(Tom은 무엇이든지 눈여겨 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는 뚫어져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

- When the hungry dog saw the bone he **was all eyes**.

(굶주린 개는 뼈다귀가 눈에 띄자 뚫어지게 바라 보았다.)

To keep an eye on :

지키다, 감시하다, 보살피다.

이것은 ‘(눈을 떼지 않고)지키다’, ‘감시하다’ 혹은 ‘(사고를 내지 않도록)보살피다’, ‘눈독을 들여두다’라는 뜻으로 항시 뭔가를 주의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우리 표현에서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이것은 조금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를 직역하면 ‘눈’을 어떤 물건이나 사람 위에 둔다는 것인데, ‘감시하고 있어야 할 물건 위에 눈을 둔다’는 만화적인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또 이 표현은 약간 다른 형식으로 15세기 이전에도 쓰이고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쓰인 지는 1백년이 넘는다.

- Please **keep an eye on** the house while we're on vacation.

(우리가 휴가로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 우리집을 좀 지켜봐 주시오.)

- The babysitter is **keeping an eye on** our children while my wife is shopping.

(아내가 물건 사러간 동안은 그 베이비 시터(애보는 사람)가 애들을 돌보고 있다.)

- Please **keep an eye on** my suitcase while I go to buy my ticket.

(내가 표를 사러간 동안 나의 수우트케이스를 봐 주시오.)

정보통신 용어해설

• C언어(C language) :

범용 프로그래밍언어의 하나이며 실용적인 표현 방식과 근대적인 제어구조 및 데이터 구조, 그 이외에도 풍부한 연산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C언어는 BELL연구소에서 개발한 유닉스(UNIX)시스템에서의 중심프로그래밍 언어이다.

• DLS(Digital Leased-line Service) :

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DLS)는 한국데이터통신(주)에서 설치, 운영하는 디지털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고품질, 고속, 고신뢰도의 데이터통신 전용회선 서비스이다.

• X.25 Protocol :

전기통신선로를 통한 국제적인 데이터 전송에 대해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가 권고하는 표준안의 하나로서 패킷과 패킷망, 망 내에서 접속하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패킷, 그리고 비패킷사용자 단말기 간의 접속기준을 3개 층으로 정의하여 채택한 패킷교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3개층의 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층 : 패킷교환기와 사용자 단말기간의 물리적, 전기적인 접속기준으로서 RS-232-C와 유사하게 정의하였다.

— 제2층 : 에러방지과 고능률 전송을 위한 접속기준으로 ISO의 HDLC 기준을 채택.

— 제3층 : 패킷의 형태와 패킷 전송방식의 제어를 정의하는 계층으로 X.25 고유의 것이다. CCITT는 한 패킷의 메시지 길이를 1KB(128영문자)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